‘도시균형발전위’ 시의원 참여 논란

광주시 “단체장 권한 간섭” 조례안 재의 요구
시의회 “자치구간 격차 해소 심의기구일 뿐”

“자치구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심의·자문기구이다.”(광주시의회)

“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 위법한 기구이다.”(광주시)

최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안’에 의해 구성될 광주시 위원회인 ‘광주시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해석을 놓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가 9일 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조례(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시가 시의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시의회 사상 드문 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재의 요구안에서 “시 조례(5조 기본계획 수립)에 ‘자치구의 재정’을 포함한 것은 기초단체의 고유사무를 침해한 것이며,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자치구 경계 변경을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단체장의 업무 자문을 위한 위원회에 시의원을 포함시킨 것은 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할 소지가 있어 의회와 단체장의 권한 분리와 배분의 원칙에도 벗어난다”고 덧붙였다.

시의 주장은 명목상 해당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이지만 이면에는 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집행부 사무에 대한 간섭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재홍 의원은 “위원회에서 자치구는 구간 격차해소를 통해 시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단순 심의·자문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해당 부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구일 뿐인데, 집행부가 자신들을 간섭할 수 있는 기구로 생각하는 등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균형발전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과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에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며 산하 위원회에서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심의·자문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있고, 광주시의 각종 위원회 90여개 중 60여개에 시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시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은 특히 “균형발전위원회 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시가 재의를 요구한 이 조례는 시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효력을 갖게 되며, 시가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 연일 ‘李통일 때리기’

“쌀지원 발언 대선용 정상회담 길닦기”

한나라당이 연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 장관의 최근 행보가 남북관계를 대선에 활용하려는 정략적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때문이다. 이른바 ‘신 북풍’에 대한 경계심이 발동한 것.

김형오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때 친북성향을 드러냈던 이 장관의 발언 수위가 계속해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국민은 생각하고 있다. 국회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황진하 국제위원장은 “한총련이 주장하는 북한의 통일방안, 즉 낮은 단계의 연방제 추진은 여당이 차기 정권을 잡을 경우 추진될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이미 거론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논의와 이 장관의 ‘빈곤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 등의 발언이 그 시작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은 “이 장관의 ‘쌀지원 무상전환 검토’ 발언은 (정부가) 대선용 정상회담 길 닦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황우여 사무총장도 “(추가 핵실험은 없을 것이란) 불분명한 낙관론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추가 핵실험이 있거나 다른 징후가 있을 때는 이 장관은 직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개헌 제안’ 긴급 최고중진회의의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담화 발표와 관련 9일 오후 국회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긴급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도탈당, 당내 상당수 같이 움직인다”

염동연 의원 “개헌 제안과 탈당 연계 안돼”

열린우리당의 정계개편론과 관련, 선도탈당 입장을 밝힌 염동연 의원(사진)은 9일 “상당 숫자가 같이 움직인다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통합신당론자인 염 의원은 이날 오전 태국 방문 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통합신당이) 시기적으로 임박했다. 더이상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낭비”라며 이같이 말했다.

염 의원은 그러나 “아직 (다른 의원들과) 탈당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다”며 “더군다나 그룹핑해서 하는 행보는 안맞고 도리도 아니다”고 언급, 세력을 규합한 뒤 집단탈당을 적극 시도하는 움직임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탈당 시기와 관련, “전당대회가 무용하다는 얘기도 있고 길게는 전대 전에 탈당하겠다”면서도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는 많지만 (탈당이)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는 사람도 많다”며 구체적 시기를 언급하진 않았다.

그는 “이전처럼 앞으로 통합신당에 참여할 분들을 만나겠다”며 “다만 내일 고건 전 총리를 만나기로 했는데 시기적으로 탈당과 연관지을까 우려돼 만날 계획을 취소할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의 탈당 만류 움직임과 관련, “이제까지 시간도 아깝다. 젖먹던 힘까지 발휘하자는 얘기는 2년간 들었다”며 “이제는 아니다”고 말해 탈당의사를 번복할 생각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염 의원은 이어 오후에는 김근태 의장을 30분 가량 면담하고 탈당 결심을 전달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염 의원이 대통령과 특수관계로서 뒷받침할 위치에 있으니 탈당하지 말고 개헌문제부터 관심을 가져달라”며 만류했으나 염 의원은 “탈당 결심에는 변함이 없고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탈당과 연계되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노무현 대통령 우리가 껴안고 가야”

함세웅 신부

진보 진영의 대표적 인사로 꼽히는 함세웅 신부는 9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분노하는 부분이 있지만 가족 중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치지 않듯이 우리가 껴안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함 신부는 이날 낮 기자 간담회를 갖고 “노 대통령이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품성이 그렇다. 품성이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대통령은 그 시대, 그 수준의 반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이상은 큰데 철학적 바탕이 없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감각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이 진보진영 전체에 영향을 주는 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연합뉴스

“대선 여야 대결 구도 보수세력 압승 가능성”

정대화 상지대 교수

정대화 상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9일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의 ‘2007년 대선 성격과 전망, 대응방향’ 발제문에서 “참여정부의 반복된 실정으로 나타난 반개혁적 정서가 대선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올해 대선은 6월 민주항쟁이 20년을 경과해 동력을 상실해 버려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적 의미의 선거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부정하는 반항쟁적 의미의 선거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2007년 대선을 예측한 표에서 보수세력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고 여야 대결구도로 가겠지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모두 분열 가능성이 있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과거 분단문제나 지역감정이 대선의 주요 변수였으나 이제는 정치적 폭발력이 약화돼 올해는 부동산문제나 비정규직 문제, 교육문제 등에 대한 정책이 폭발력을 갖는 정책변수”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교원임용고시의 모든것! 본 학원 출신 2007학년도 공립 유치원교사 광주자역 17명중 15명합격(1차합격자 기준) 관점없는 공부는 낭비일 뿐 입니다.

곽내영고시학원 겨울방학특강

무료공개설명회 1:1전문상담 환영 http://www.naeyoung.com
자음시작에서 합격까지 전문 상담을 통한 합격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곽내영고시학원은 오직 임용고시만을 전문으로 강의합니다.
새단장 최적의 학습 환경구축 학습공간을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했습니다.
개인 사물함, 스터디룸, 정독시설, 개인PC룸, 최첨단 영상강의실 완비
단체 10명이상 수강등록시 할인혜택 ※선강과 마감유의(현재 정원의 절수중)
인터넷 동영상강의 www.edtview.net 에듀뷰넷

개설강좌
곽내영교육학 개강 1월 6일(토) 착강
위재권 초등교육 개강 1월 3일(수) 착강
임미선 유아교육 개강 1월 12일(금)
임대성 전공수학 개강 1월 8일(월) 착강
최봉웅 전공국어 개강 1월 11일(목)
강지욱 전공생물·장영민 전공물리 김성의 전공미술·김형수 일반사회 개강 1월 첫째주 해당요일

곽내영고시학원 대표전화 (062)529-0090 광주역과 무등경기장 사이(산안 사거리)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안내광고 원고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아래 은행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하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 직통:(062)227-9600 • FAX:227-9500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
사설금융·매입·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광주은행 : 001-107-228160 ◆농 협 : 6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전자파 없는 우성온수매트!
15년전통의 (주)우성돌매트에서 만든 믿을수 있는 제품
우성온수매트의 특장점 디지털방식/경제성/안전성/건강소재
하루10시간 사용시 월 전기료 4,000원-절전형
우성 온수 매트가 왜 좋을까요?
황토원단 + 참숯원단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리에서 보냅니다.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젠, 주무실때만이라도 소음과 전자파가 없는
우성온수매트에서 편안한 잠자리를 가져보십시오
■1인용 228,000▶178,000(아나로그)일반형 ■1인용 278,000▶208,000(디지털)고급형
■2인용 258,000▶198,000(아나로그)일반형 ■2인용 298,000▶228,000(디지털)고급형
100% A/S평생보장 24시 A/S센터
(주)우성돌침대 온수매트사업부 주문전화 1600-7234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시험 : 4월14일(접수기간 1/19~1/23), 광주시, 전남도, 서울시, 경기도 시험대비
7·9급 일반행정직 김정우 행정법 노량진올스타 대표교수팀 특별강의
사회복지직 김형준 교수팀 특별강의
9급 교정직 형소 김종길, 교정학 김보한 노량진특별초청강의
소방직 오형순 소방학 대표교수팀 특별강의
7·9급 교육행정직 영어:전상호, 국사:장병우 교수 초청 특별강의
공인중개사 김창권,최병현,장원석,김보한,최진영,양형렬 교수진
-광주·전남 수강생 만족도 가장 높은 학원-
光州 메가고시학원 http://www.gmega.co.kr
■상담전화 : (062)226-5050 ■위치 : 전남여고 후문 맞은편

주식분할로 인한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07년 1월 8일 임시주주총회결의로 1주의 금액 10,000원의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금500원의 주식 20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1개월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9일

주식회사 명성환경
광주 서구 매월동 621-27
대표이사 이 상 수

사람을 찾습니다

성 명:조순례(77세,여)
발생일시:2006. 11. 25 09:30경
장 소:전남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622-1번지
인상착의:160cm, 50kg, 검은색 파마머리 빨간색 잠바, 밤색바지 흰색운동화 착용, 치매 증상

전남 함평경찰서 061)323-0182(생활안전계) 061)324-5050(형사계)
미아찾기 센터 02)182
자 택 061)323-0505
핸드폰 : 016-688-0565, 011-627-4808

급매 ◉서석고 정문앞 장원빌라 ◉81평 매매 2억(분양가 3억6천)
연락처 011-609-1245